

김헌덕 (사)민족통일협의회 부의장(한남RC 전회장) 2018 민족통일전국대회에서 '국민포장' 수상

김헌덕 한남RC 전회장이 영예로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김헌덕 전회장은 지난해 9월 12일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통 창설 37주년 기념-민족통일 전국대회'에서 민간통일운동에 공이 큰 유공자로 선정되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현재 (사)민족통일협의회 부의장으로 재임중인 김헌덕 전회장은 지난 2003년 민통 회원으로 입회하여 -서울 중구협 회장 -서울시협 회장 -민통 부의장 등 15년동안 활동하면서 민간통일운동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기여를 해왔다. 그동안 김헌덕 전회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통일관을 갖고 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으며, 특히 민간통일운동 기반 조성을 위해 크고 작은 여러 통일사업에 참석하였으며, 소요경비를 부담하여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크게 공헌해왔다. 🌟



백운재 변호사(서울중앙RC), 제1회 한국중재대상 대리인 부문 대상 수상



백운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서울중앙RC 전회장)가 제1회 한국중재대상 대리인 부문 대상 수상했다. 중재는 전문기관에서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중재인을 통해 시비를 가리는 제도다. 비밀 유지가 가능하고 단심제라 진행이 빠르다.

백운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리인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서울대 법대와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백 변호사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중재인을 맡는 등 국제 분야 베테랑으로 꼽힌다. 백운재 변호사는 서울중앙RC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구 법인 감사로 활동하는 등 로타리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해왔다.

한국중재대상은 중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로펌과 중재인(판사 역할), 대리인(변호사)의 공로를 기리고 중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올해 제정했다. 법무부와 대한중재인협회, 한국중재학회, 국제중재실무회 등이 후원한다. 🌟



정영수 CJ그룹 경영 고문(서울중앙RC) 제17차 세계한상대회에서 신임 리딩CEO그룹에 선임

정영수 CJ그룹 경영 고문(서울중앙RC)이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17차 세계한상대회에서 신임 리딩CEO그룹에 선임됐다.

제17차 세계한상대회에서는 호주, 엘살바도르, 싱가포르 등 세계 곳곳에서 한민족의 위상을 드높인 한상들이 새롭게 '리딩 CEO' 그룹에 합류해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영수 CJ그룹 글로벌 경영고문(서울중앙RC)은 이숙진 제마이홀딩스그룹 대표, 하경서 CAISA 회장과 함께 신임 리딩 CEO에 선임됐다.

리딩 CEO는 자본금 300만달러 이상, 매출 3000만달러 이상 한상기업인들 모임이다. 기존 리딩 CEO가 추천하고,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한상대회 내부회의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거친 후 결정됐다.

정영수 CJ그룹 글로벌 경영고문은 싱가포르에서 상사 주재원이던 1984년 마그네틱 테이프 등을 생산·수출하는 진맥스(JINMAX)를 설립해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싱가포르 한인회장,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내며 2009년 CJ그룹에 선임돼 현재 동남아 시장 전략 수립을 돕는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세계한상대회(The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는 600만 해외 동포의 경제적 교류를 위해 열리는 재외 동포 경제인 대회로, 재외동포재단과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해외 동포 기업인을 비롯해 각계의 전문가와 국내 경영인들이 참가한다. 🌟



소프라노 손미선 (한성RC) 독창회, 1월 29일(월) 세종체임버홀

소프라노 손미선 지구 의전위원장(한성RC, 단국대 대학원 오페라 전공 예술대 교수)이 오는 1월 29일(화) 오후 7시 30분 세종체임버홀에서 독창회를 갖는다.

기품 있는 음색을 소유한 소프라노 손미선 위원장은 애창곡집 CD와 내 마음 가곡 CD를 출판하는 등 청중들과의 특별하고도 친숙한 만남을 시도하며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 외에도 단국오페라단 준비위원장직을 맡아 개교 66주년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DKU OPERA MUSE 단장으로 2014년 창단공연 오페라 리골레토를 진두지휘하며 기획자로서 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2017-18년도 한성로타리클럽 회장을 역임하고 금회기 지구 의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미선 위원장은 현재 단국대학교 음악대학원 오페라전공, 예술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

